

# 계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Genealogical Materials

이 창 수(Chang Soo Lee)\*\*

### 〈 목 차 〉

- |                    |                     |
|--------------------|---------------------|
| I. 서 언             | IV. 계보자료의 조직        |
| II. 계보자료의 유형과 관리기준 | 1. 분류표상의 분류체계       |
| 1. 계보자료의 유형        | 2. 계보자료의 개별화 방법과 편목 |
| 2. 계보자료의 관리기준      | V. 계보자료 관리상의 개선 방안  |
| III. 계보자료의 관리 사례   | VI. 결 언             |
| 1. 국내의 사례          |                     |
| 2. 외국의 사례          |                     |

### 초 록

계보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일반자료와는 다르게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도서관에서는 계보관련 자료의 효용가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방법이 족보에 한정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소장된 자료에 대해서도 그 조직이 합리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의 계보자료의 관리사례를 조사하고, 계보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수집과 분류 및 편목 등의 자료조직 실태를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장서관리와 정보검색이 될 수 있도록 계보자료의 수집과 자료조직상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어 : 계보자료, 계보학, 장서관리, 족보자료, 족보학

### Abstract

Libraries which have a large amount of genealogical materials need to manage them in a special way differing from the other materials. Although genealogy related materials have high pragmatic value, the reality is that the acquiring methods are limited to collect the genealogical table or is not systematic. Even the genealogical materials held in the library are not rationally organized.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s of the management of genealogical materials both in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nd also examines the real situations of material organization such as the collection, the classification and the cataloging on the centering of the libraries which hold a large amount of genealogical materials. On the basis of this investigation, the study aims to measure the enhancement of the methods for collecting and organizing genealogical materials which enable the collection management and information retrieval for them to be efficient and effective.

Key Words : Collection Management, Genealogical Materials, Genealogy

\* 이 논문은 2001년도 경북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csl@knu.ac.kr)

• 접수일 : 2002. 8. 20 • 최종심사일 : 2002. 8. 27 • 최종심사일 : 2002. 8. 28

## I. 서 언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본성이다. 혈연관계의 연속성 또는 혈통과 가문의 역사를 적은 책을 系譜(Genealogy)라 한다. 계보란 “가문 및 혈통이 계승되어 온 연속성 또는 그 기록을 일컫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혈연 내지 혈통의 생물학적 사실에 따라 그 연속성의 서열을 정한다.”<sup>1)</sup>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러한 계보를 族譜라 하고 世系를 적은 책으로 귀중하게 여겨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계보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는 계보자료 또는 족보자료라 통칭하며, 이 계보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일반자료와는 다르게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家系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과정인 혈통은 가족사의 기본이며 이것은 현존하는 연로한 친척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나, 개개 이름의 기록물, 오래된 편지 등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출생, 결혼, 죽음에 관한 기록을 시청이나 지방의회에서 조사하고 묘비기록을 살펴보며, 가족이 자주 출입한 교회를 찾아가 결혼과 장례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기도 한다.<sup>2)</sup> 서양에서는 족보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모든 관련자료가 계보자료의 수집 대상으로 특수한 컬렉션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나라 각급 도서관에서는 계보관련 자료의 효용가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방법이 족보에 한정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소장된 자료에 대해서도 그 조직이 합리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의 계보자료의 관리사례를 조사하고, 계보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수집과 분류 및 편목 등의 자료조직 실태를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장서관리와 정보검색이 될 수 있도록 계보자료의 수집과 자료조직상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cited 2002.8.16]

<<http://search.encyber.com/wsearch.php?gs=ws&gd=&cd=&k=&d=&p=1&q=계보&>>

2) Gilbert H. Doane, "Genealogical Libraries and Collection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Vol. 9(1973), pp.200-201.

## II. 계보자료의 유형과 관리기준

### 1. 계보자료의 유형

ALA의 '기본적인 계보컬렉션과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지침'<sup>3)</sup>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양에서는 계보컬렉션의 장서로 계보연구의 방법에 관한 편람이나 매뉴얼; 가족사; 족보류; 생명에 관한 기록물; 인구조사표; 유언장·유서; 땅문서; 지도; 공동묘지와 종교적 기록물; 이민과 귀화기록; 투표자 리스트; 군사기록; 신문; 지방사 자료; 당해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이외의 다른 지역사회, 카운티, 州, 국가들에서 생산된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에 대한 색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계보자료 중에서 주로 족보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바, 족보를 그 수록 범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sup>4)</sup>

- ① 族譜 : 모든 譜牒類의 대명사로 쓰이나, 한편으로는 보첩류의 한 유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관 단위로 편집하고 이름(名諱字)과 事蹟, 혈연관계를 수록한 것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서 '...族譜'라는 표제로 표기된다.
- ② 世譜 : 두 종과 이상이 合譜한 경우에 대체로 사용한 족보로서 '...世譜'라는 표제로 표기된다.
- ③ 波譜 :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派屬이 독립하여 편찬한 족보로서 '...派譜', '...派世譜', '...派族譜' 등의 표제로 표기된다.
- ④ 系譜 : 가족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시조로부터 이름(名諱字)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世系圖로서 '...系譜', '...圖譜', '...世系' 등의 표제로 표기된다.
- ⑤ 大同譜, 總譜 : 시조가 같은 同姓異本이나 同姓同本の 씨족들이 통합하여 편찬한 족보로서 '...大同譜', '...大譜', '...大宗譜', '...大同世譜', '...大同宗譜' 등의 표제로 표기된다.
- ⑥ 姓譜, 萬姓譜 : 각 성씨별 본관별로 집대성한 계보로서 「朝鮮氏族統譜」, 「萬姓大同譜」, 「靑丘氏譜」 등이 있다.
- ⑦ 家乘 : 자기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直系 尊卑屬과 傍系 혈족의 事

3) "Guidelines for Developing Beginning Genealogical Collections and Services," Prepared by the Genealogy Committee of the History Section of the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1991, revised 1999. Approved by the RUSA Board of Directors June 1999.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V.39, N.1(Fall 1999), pp. 23-24.

4) 張仁鎮, "族譜資料의 文獻學的 考察," 漢文學研究, 第9輯(1994), pp.240-241 ; 봉성기, "譜牒資料 現況 및 利用에 관한 考察 -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에 대하여," 도서관, Vol.56, No.4(2001년 겨울호), pp.80-83에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

蹟을 수록한 족보로서 ‘…派家乘’, ‘…家乘譜’, ‘…家譜’, ‘…派家乘世系’, ‘…世乘’, ‘…家乘’ 등의 표제로 표기된다.

- ⑧ 別譜 : 동일한 시조의 후손으로 추정은 되지만 先系를 잃어버려 계통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할 때 譜所에서 별도로 편집한 別派의 계보.
- ⑨ 璿源譜 : 역대 임금의 계보로서 「璿源系譜」, 「璿源世系」 등이 있다.
- ⑩ 簪纓譜, 摺紳譜 : 內職과 外職에 벼슬한 가문의 계보.
- ⑪ 文譜, 武譜, 蔭譜 : 文科과 武科에 급제하고 벼슬한 가문의 계보 및 蔭職의 벼슬을 한 가문의 계보.
- ⑫ 靑襟譜 : 儒學에 뜻을 둔 선비 가문의 계보.
- ⑬ 外補 : 자기의 外家, 陳外家, 曾外家, 先外家の 계보
- ⑭ 外裔譜 : 女派 外後孫의 계보.
- ⑮ 八高祖譜 : 4代까지의 祖父, 祖母, 外祖父, 外祖母의 계통도

이외에도 특수한 것으로 한 고을의 鄉案에 포함되어 있는 가문을 수록한 鄉譜, 내시들의 계보인 內侍譜, 노비들의 계보인 奴婢宗親譜, 특정 당파를 수록한 黨派譜 등이 있다.

한편 출판 형태에 따라 전통적으로 고족보에서 널리 사용된 선장본 족보과 근래에 새로이 편찬되기 시작한 양장본 족보, 전자자료(CD-ROM)형 족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계보자료의 관리기준

전술한 ALA의 ‘기본적인 계보컬렉션과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지침’<sup>5)</sup>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계보자료의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1) 서비스

① 계보자료 참고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보조하고 지도하며, 다양한 형태의 정보의 유효성 및 중요성을 평가하며, 인쇄 및 디지털 자원의 소재를 파악하여 서비스하고, 상호대차 및 대출서비스를 통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용자를 특정한 계보 연구자료를 도와 줄 수 있는 다른 도서관, 기관, 기록보존소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② 필요시 계보자료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질문을 자관의 장서나 상호대차를 통해서도 제공해 줄 수 없는 연구자료를 알고 있는 안내사서가 소속된 도서관이나 정부기관, 기록

5) “Guidelines for Developing Beginning Genealogical Collections and Services,” *loc. cit.*

보존소,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자원 센터에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특정한 계보자료 참고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없을 경우는 도서관의 일반참고봉사에서 계보자료 이용자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 2) 장서개발

① 계보컬렉션은 계보연구의 방법에 관한 편람이나 메뉴얼; 가족사; 족보의 원본 또는 복사본, 가족그룹쉬트의 출판된 편집물; 생명에 관한 기록물; 인구조사표; 유언장·유서; 땅문서; 지도; 공동묘지와 종교적 기록물; 이민과 귀화기록; 투표자 리스트; 군사기록; 신문; 지방사 자료; 당해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이외의 다른 지역사회, 카운티, 州, 국가들에서 생산된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에 대한 색인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마이크로폼, 인쇄형태, 디지털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포맷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② 계보컬렉션은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뿌리가 된 국가와 종족 배경에 의거하여 계보컬렉션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컬렉션의 범위는 적어도 지역사회의 대다수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컬렉션은 계보 연구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료는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가능한 한 폭 넓은 민족과 종족 그룹을 포함해야 한다.

③ 개인소장 계보자료로의 일반 시민의 접근이 무료로 가능한 지역에서는 도서관은 협력적인 장서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④ 자료선택에서 계보자료의 기본 서지, 도서관 및 계보관련 저널에서의 서평, 신뢰할 만한 디지털 자원에서 제공된 서평 등이 활용되어야 한다.

## 3) 직원

① 계보자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봉사하는 모든 참고사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계보 연구의 진전 사항이 발표되는 지역적, 국가적 계보 또는 도서관 관련 회의, 세미나, 모임이나 원격 교육과정을 통해 꾸준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② 참고사서는 계보자료 이용자들에게 자료평가, 검색기술, 프로토콜, 디지털자원의 이용법, 계보 연구에 관련된 서비스 등을 보조해 주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를 다른 기록보존소, 정부기관, 도서관에 안내할 책임이 있으므로 훈련된 사서는 계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기관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서관 직원들은 지역의 계보 및 역사학회의 컬렉션 및 장서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④ 계보연구에 지식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참고사서에 의해서 계보자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서비스를 보조하는데 활용할 수는 있으나 계보전문사서를 대치할 수는 없다.

#### 4) 접근성

- ① 계보자료는 그것이 희귀한 것이거나 참고자료 또는 아주 빈번히 매일 이용되는 지역의 자료가 아니라면 대출이나 상호대차가 가능해야 한다.
- ② 서지 또는 참고자료 안내, 대출 및 디지털화 계보자료와 자원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 ③ 계보자료의 수서 및 편목은 다른 도서관자료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Ⅲ. 계보자료의 관리 사례

#### 1. 국내의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 이후 士大夫 집안의 家乘으로부터 족보 관련 자료가 筆寫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 동족 또는 한 분파 전체를 포함하는 족보는 조선 중기에 이르러 출현하였다. 1423년의 「文化柳氏世譜」(永樂譜)가 최초의 족보로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지 않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규장각 소장의 1476년 權擘이 編하고 徐居正이 序文을 쓴 「安東權氏世譜」(成化譜) 3권 3책이다. 족보는 조선 초기인 15세기에 처음으로 출현하였으나 모든 종족이 같은 시기에 족보를 간행한 것은 아니며 16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종족마다 족보 간행 시작시기가 다르며 현재까지도 족보를 간행하지 않은 종족도 적지 않다.<sup>6)</sup>

족보자료의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의 성씨는 조선초기에는 「世宗實錄地理志」에 265성, 일제시대인 1930년 조선국세조사에서는 250성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 성씨 및 본관을 조사한 결과 275개 성씨와 3,349개 본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sup>7)</sup>

우리나라 전체의 족보자료의 현황을 조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 중에서 족보자료 컬렉션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을 중심으로 족보자료의 현황과 관리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6) 崔在錫, "족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666.

7)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한국인의 성씨 및 본관 조사보고: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상권. 서울: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88. pp.3-9.

1)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sup>8)</sup>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족보자료를 고전운영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에서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고서와 족보를 관리하는 고전운영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절기(3-10월)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11-2월)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하며 자료신청은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2002년 9월 현재 고전운영실에는 4명의 사서와 5명의 고서전문원이 고서와 족보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족보자료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족보자료도 고서의 한 유형으로 보고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말 현재 고족보가 6,432종 26,575책 소장하고 있으며, 양장본 족보도 2,300여종을 소장하고 있다.”<sup>9)</sup>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족보 소장 현황

수집기간	종 수	책 수
1945년 이전	2,459	11,837
1946~2001년	3,973	14,738
합 계	6,432	26,575

한편 2000년 12월까지 구입, 기증, 納本, 影印의 방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수집된 족보의 종수는 고족보, 양장본 족보를 합쳐서 151姓 8,580종으로 이를 상위 다섯 姓을 중심으로 소장 本의 수와 족보의 종수를 나타내면 <표 2>와 같다.<sup>10)</sup> 여기서 상위 다섯 성씨의 족보가 전체 소장 족보의 56.95%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족보자료의 서가배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표 2> 국립중앙도서관의 성씨별 족보자료 현황

성 씨	소장 本貫의 수	소장 족보	
		종 수	전체에 대한 비율(%)
金	115	2,207	25.72
李	98	1,265	14.74
朴	37	748	8.72
崔	34	388	4.52
鄭	22	278	3.24
합 계	306	4,886	56.95

8) <<http://www.nl.go.kr/>> [cited 2002.3.17]

9) 봉성기, *op. cit.* p.88.

10) *Ibid.*, p.87.

2)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족보실<sup>11)</sup>

뿌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족보 및 족보해설집 등 139姓 483본관의 6,155권(2002년 2월 18일 현재)의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족보학에 조예가 깊은 전담자가 자료이용 및 족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족보실은 면적이 158.4 m<sup>2</sup>이고, 좌석은 40석으로 1일 족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열람만 가능하며 자료실내에서 복사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동도서관에서는 자관의 족보실의 자료를 포함한 1993년 1월 1일 현재 20개의 서울특별시립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94개의姓과 309개의 본관, 4,463개의波를 담고 있는 족보 1,207종과 족보해설서 등 관련자료 332종의 목록을 자세히 수록하여 손쉽게 족보자료에 접근하고 체계적인 족보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울特別市立公共圖書館 族譜綜合目錄'<sup>12)</sup>을 발간하였다.

3) 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 족보자료코너<sup>13)</sup>

두류도서관 특색사업으로 1985년 5월부터 지역주민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성현들의 숭고한 사상, 위업을 알리고 조상의 뿌리찾기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국내 각 씨족들의 족보 및 문집을 비치하여 족보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해 오다가 지금은 전담 직원 없이 정기간행물실의 한 코너로 운영되고 있다. 소장 자료 현황은 <표 3>과 같으며, 면적은 172 m<sup>2</sup>이고 좌석수는 34석이다. 대구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족보의 유래, 종류, 계촌법, 족보 보는 법 등의 내용을 자체 제작한 족보교육 비디오테이프를 대여하여 해당 학교에서 상영하는 방법으로 족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상에서 소장하고 있는 족보자료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표 3> 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의 족보자료 소장 현황 (2001년 12월 현재)

종별	대동보	파보	세보	족보	문집	기타	계
수량	1,053	800	1,343	514	1,188	553	5,451

이외에도 족보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도서관으로는 족보를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대전에 있는 회상사의 족보도서관이 있으며, 정신문화연구원의 장서각, 서울대학교의 규장각, 그리고 고문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등에서 족보자료를 많이

11) <<http://www.jeongdok.or.kr/>> [cited 2002.3.17]

12) 서울特別市立公共圖書館 族譜綜合目錄 1, 서울: 서울特別市立正讀圖書館, 1993.

13) <<http://www.turyu-lib.taegu.kr/>> [cited 2002.3.19]

소장하고 있다.

## 2. 외국의 사례

외국의 계보자료 관리실태를 多民族, 多人種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족과 종족의 이주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국가인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의 대표적인 계보컬렉션을 중심으로 ALA의 기준에 따라 그 사례를 조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Los Angeles 공공도서관의 역사 및 계보자료부

미국 Los Angeles 공공도서관의 역사 및 계보자료부에는 계보전문사서, 사진전문사서, 지도전문사서, California역사전문사서를 포함한 모두 8명의 사서가 근무하고 있다.<sup>14)</sup> 계보전문가 및 특수자료인 지도와 사진전문 직원을 따로 배치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장서는 약 150,000종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5,000종이 계보자료로 분류되고 있다. 계보자료의 장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15)</sup>

- 인구조사 기록 : Los Angeles 지역의 1790년-1900년에 해당하는 모든 인구조사 기록과 1910년-1920년의 부분적인 인구조사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단행본 인구조사기록 색인지와 인디안 인구조사기록물 및 노예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 이민기록자료 : San Francisco, Boston, Philadelphia에 정박한 배편의 도착자 리스트 및 1907년에서 1948년 사이 San Pedro, Wilmington, Los Angeles에 도착한 선박자 리스트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남부 캘리포니아에 귀화한 미 지방법원 기록물을 지니고 있다.
- 계보학 입문서 및 실용서 : 계보학 입문자부터 특정 독자층을 겨냥한 자료에 이르기까지 계보학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편람 등의 입문서 및 실용서를 소장
- 도시명감(City Directory) : 1861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 도시의 변천사를 담고있는 도시명감을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소장
- 군사기록 : 독립전쟁, 남북전쟁에 참가한 군사명부
- 신문 : 대표적인 지역신문인 Los Angeles Times(1881-)를 비롯하여, New York Times (1851-), Times of London (1785-), San Francisco Chronicle(1869-), Chicago Tribune (1849-1998) 신문을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 사망자명부
- 기타 주요 자료 : California Death Index (1930-1994), California Marriage Index

14) <<http://www.lapl.org/central/history.html>> [cited 2002.8.6]

15) <<http://www.lapl.org/central/guides/genealogy.html>> [cited 2002.8.6]

(1960-1986) 등의 계보학 연구에 주요한 색인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The California Birth Record Index(1905-1995), The California Death Record Index(1940-1997)는 현재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역사 및 계보자료부에서는 입문서로 분류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관외대출이 불가능하다. 계보자료 전문사서는 전자메일과 전화, 팩스를 통한 간략한 참고봉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계보학 연구지원은 단순히 계보학 전문가로의 정보안내 서비스(Referral Service)만을 제공하고 있다.

## 2) Auckland 시립도서관의 가족사 자료<sup>16)</sup>

뉴질랜드의 Auckland 시립도서관의 계보관련자료는 뉴질랜드와 호주, 영국 가족사를 연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출생, 결혼, 죽음에 관한 기록물, 공동묘지 전사물, 유언장과 같은 계보학적 정보를 제공할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Auckland 시립도서관의 주요 계보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일반참고서지자료(인쇄형)

New Zealand Birth, marriage and death indexes 1840s-1990

New Zealand Cemetery records

New Zealand electoral rolls(1840s-현재)

Auckland passenger arrival index 1840-1899

General Register Office indexes of births, marriages and deaths 1837-1996

Australian state indexes to births, marriages and death(CD-ROM과 마이크로피쉬)

1851년 Census indexes for England, wales and Scotland

International Genealogical Index(CD-ROM과 마이크로피쉬)

New Zealand Card Index

### · 온라인 DB

Auckland Passenger Arrivals 1840-1882

: 1840년에 1882년 사이 Auckland 내부 여행객에 관한 신문기록 DB

Auckland Police Census 1842-1846

: 19세기 Auckland 지방의 가족 및 거주자 인구조사기록 DB

Auckland City Street Names

: Auckland시의 위치와 이전이름, 이름의 기원 등에 관한 DB

---

16) <<http://www.aucklandcitylibraries.com/process.asp?pageurl=/explore/familyhist/index.html>>  
[cited 2002.4.21]

Cemetery Records

: Hillsborough, Ostend, Otahuhu와 같은 공동묘지의 장례기록 DB로 죽은자의 기록번호, 성별, 사망일자, 나이, 출신지역, 성과 이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계보관련자료는 평일은 09시 30분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일요일은 12시부터 16시까지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나, 관외대출은 제한된다. 가족사 컬렉션 분야의 주제전문사서가 배정되어 있어 계보학 연구자는 홈페이지 상에서 전문사서에게 바로 전자메일을 전송하여 참고질의를 할 수가 있다. 또한 'Family History Research Service'라는 이름 아래 웹 상에서 미리 작성되어 있는 폼에 도움 받기를 원하는 내용과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전송할 수 있는 전자 참고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3) Victoria 주립도서관의 계보자료 센터<sup>17)</sup>

호주의 Victoria 주립도서관의 계보자료 센터의 장서는 Victoria州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기타 다른 호주의 각 주와 뉴질랜드에 관한 주요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영국, 에이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관한 일부 기록도 소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장 자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인쇄형 자료

- 호주, 뉴질랜드, 영국, 웨일즈의 시민등록(Civil Registration) 색인
- 호주, 미국,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우체국과 세대주 디렉토리
- 20세기 호주 선거인명부
-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공동묘지 묘석에 관한 색인
- 호주 죄수 명부대장
- 19세기 영국과 웨일즈의 인구조사 색인
- 호주, 독일, 이탈리아인 전기적 기록보존물

· 마이크로 필름/피쉬 및 CD-ROM 형태 자료

인쇄형자료와 마찬가지로 계보학 연구에 필요한 마이크로 필름/피쉬 및 CD-ROM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것들의 소장 리스트는 센터에서 시리즈로 발간하는 <GENIEGUIDE>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계보자료 센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0시부터 21시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0시부터 18시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질문에 전자메일, 전화, 팩스, 편지 등을 통해 참고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17) <<http://www.statelibrary.vic.gov.au/slv/genealogy/genealog.htm>> [cited 2002.4.21]

#### 4) 캐나다 국립도서관의 계보 및 가족사 자료<sup>18)</sup>

캐나다 국립도서관은 캐나다 선조를 연구하는 계보학자들에게 흥미를 줄만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캐나다인 가족과 지역사회에 관한 출판된 역사서와 교구 등록대장의 색인 및 사본, 공동묘지 기록들, 캐나다 신문과 계보학적 참고도와 정부간행물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립도서관의 장서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참고자료 : 계보학 연구방법을 알려주는 편람에서부터 가족 및 지역사회의 역사에 관한 서지, 가족 디렉토리, 계보학회 명감, 역사적인 지도책 등을 소장하고 있다.
- 교구등록대장(Parish Register) : 출생과 침례교, 결혼, 죽음과 장례에 관한 주요한 정보원인 캐나다인 교구등록대장의 색인 및 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 공동묘지 기록 : 캐나다내 계보학관련 학회는 캐나다 지역사회 공동묘지의 표비기록을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여 국립도서관으로 복사본을 송부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수집된 각종 공동묘지 기록을 수장하고 있으며, 협정을 맺은 타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상호대차도 실시한다.
- 가족사 관련자료 : 캐나다인 가족사 및 캐나다와 연계를 지닌 가족의 역사를 알려주는 다양한 출판물을 소장하고 있다.
- 계보·역사학회 발간 연속간행물 : 계보학 관련 기록 및 연구에 관한 정보, 새로운 출간물, 회의정보 등을 담고 있는 지역 계보학회 발간 학술잡지들을 소장하고 있다.
- 신문자료 : 모든 캐나다 발간 일간신문 중 선택된 신문, 모든 민족신문, 모든 향토신문을 200,000필 이상의 마이크로 필름으로 소장하고 있다.
- 정부간행물 : 성명의 변화, 새로운 시민권 획득자 목록, 군소환장과 같은 기록을 담은 'Canada Gazette', 특정한 기간동안의 이혼법을 담고 있는 'Statutes of Canada'와 같이 계보학자들에 흥미를 줄만한 지역과 연방정부 공적 출판물을 소장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에서는 캐나다인 선조를 연구하는 계보학자들의 자료접근의 용이성을 증진하기 위해 별도의 서지인 'References Sources for Canadian Genealogy'<sup>19)</sup>를 제작, 자관이 소장한 참고자료를 각 자료의 청구기호 및 간략한 서지사항과 설명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교구등록대장과 가족사관련자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7시부터 23시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협약을 맺은 기관과의 상호대차도 이루어진다. 계보 관련 전문사서를 따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Reference Enquiry Form'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자가 온라

18) <<http://www.nlc-bnc.ca/6/5/index-e.html>> [cited 2002.8.6]

19) *Reference Sources for Canadian Genealogy*. Compiled by Mary Bond. National Library of Canada, Dec. 1995. [cited 2002.8.6] <<http://www.nlc-bnc.ca/obj/s5/t2/egenea.pdf>>

인 상에서 참고질의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V. 계보자료의 조직

### 1. 분류표상의 분류체계

KDC4에서는 계보자료를 '990 傳記' 아래의 마지막 번호인 '999 系譜, 族譜'에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sup>20)</sup>

.1-.7 地域別 系譜, 族譜	.85 其他系譜的인 諸資料
.8 氏族, 貴族, 王族	.86 貴族, 華族
.81 姓氏, 氏族	.87 王家, 王族
.82 家傳, 家史	.88 帝王, 王妃
.83 墓誌, 碑銘	.9 紋章, 家紋

KDC4에서 개별 족보는 999.1-.7에 지역구분하여 국가별로만 구분하게 되어 있어 한국인의 성씨별 개별 족보는 999.11에 모두 분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999.11에 우리 나라 모든 성씨의 족보가 집중되기 때문에 개별화의 문제가 따른다. 도서관 실무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KDC 4판 개정시에 다수 있었다. 그러나 KDC 4판에서는 주기로서 “성의 자모순 그리고 동성은 본관 또는 분파명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sup>21)</sup>라고 하여 개별화에 대해서는 분류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의 족보는 거의 없고 우리 나라 족보만을 소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999.2-.7까지의 번호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번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실무 현장에서는 999.1 대동보, 999.2 파보, 999.3 세보, 999.4 가승보 등으로 족보의 종류별로 전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다. 예를 들면 ‘김해김씨 대동보 제2권’의 경우 성씨는 별치기호 처럼 ‘김’으로 주고, 다음 줄에 족보의 종류인 대동보의 분류기호 ‘999.1’를, 다음 줄에 본관 ‘김해’를, 마지막 줄에 권차를 ‘V.2’로 주고 있다.<sup>22)</sup> 여기서의 세분은 ‘성씨, 족보의 종류, 본관, 권차’ 순으로 청구기호를 매길 때 동일한 성씨아래에서 족보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분류번호의 전개와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999.2-.7의 번호를 활용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20) 韓國圖書館協會分類分科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6. pp.950-951.

21) *Ibid.*, p.950.

22) 백수영, “두류도서관 족보자료실 운영 및 활성화 방안,” 圖協, 第十七輯(1999), pp.150-151에서의 내용과 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의 자료분류 담당 사서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것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KDC4의 해설판에서 여러 성씨를 포함한 종합적인 성씨의 본관 및 시조의 유래나 주요 인물, 세계표 등 성씨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저작은 999.81 아래에 지역구분하여 세분하게 되어 ‘한국족보대전’, ‘한국씨족원류’, ‘한국성씨대관’ 등은 모두 999.8111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sup>23)</sup>

DDC21의 경우는 계보자료를 ‘920 Biography, genealogy, insignia’ 아래의 ‘929 Genealogy, names, insignia’에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sup>24)</sup>

- |                         |  |
|-------------------------|--|
| .1 Genealogy            | .6 Heraldry  |
| .2 Family histories     | .7 Royal houses, peerage, gentry, orders of knighthood |
| .3 Genealogical sources | .8 Awards, orders, decorations, autographs             |
| .4 Personal names       | .9 Forms of insignia and identification                |
| .5 Cemetery records     |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929.1에는 족보학에 관한 일반적인 저작을 분류하고 929.2에 개별 족보를 분류하고 있다. ‘929.29 祠誌, 齊誌, 壇誌’를 전개하거나 929.5에 忌辰錄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도서관도 있고,<sup>25)</sup> K대학도서관에서는 929를 ‘系譜, 族譜, 世蹟’으로 지칭하고 KDC의 전개를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sup>26)</sup>

- |                     |            |
|---------------------|------------|
| 1. 姓氏, 氏族           | 7. 王家, 王族  |
| 2. 家傳, 家史, 家乘, 世蹟   | 8. 帝王, 王妃  |
| 3. 墓誌, 碑銘, 忌辰錄, 誌狀錄 | .81 紋章, 家紋 |
| 5. 其他 系譜的인 諸資料      | 9. 國旗, 徽章  |
| 6. 貴族, 華族, 文武官      |            |

K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조사해 본 결과 성씨별 개별 족보의 분류가 929.1과 929.2에 분산되어 있는데, 여러 성씨를 포함한 종합적인 성씨의 본관 및 시조의 유래나 주요 인물, 세계표 등 성씨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일반적인 저작은 929.1에 분류하고 성씨별 개별 족보는 929.2에 분류하는 등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으로 C대학도서관에서는 929.3을 ‘族譜學 및 萬姓譜·系譜·世譜’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성씨별 본의 수에 따라 번호를 세분하여 사용하고 있다.<sup>27)</sup>

23) 韓國圖書館協會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 編, 改正第4版韓國十進分類法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7. p.292.

24)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Ed. 21. Albany, N.Y.: Forest Press, 1996. Vol.3, pp.818-820.

25) 경북대학교도서관 번역·수정, 듀이십진분류법. 제21판 경북대도서관 수정본. 대구: 경북대학교 도서관, 1998. pp.390-391.

26) K대학도서관의 고서 담당사서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것임.

- |                |                |
|----------------|----------------|
| .31 大姓大同譜 및 派譜 | .36 貴姓大同譜 및 派譜 |
| .32 金姓大同譜 및 派譜 | .37 稀姓大同譜 및 派譜 |
| .33 李姓大同譜 및 派譜 | .38 僻姓大同譜 및 派譜 |
| .34 朴姓大同譜 및 派譜 | .39 其他 外國人 族譜  |
| .35 著姓大同譜 및 派譜 |                |

C대학의 계보자료를 위한 분류번호의 전개는 우리나라의 성씨별 개별 족보가 하나의 분류에 집중되어 개별화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소산으로 보이나 김, 이, 박씨를 제외하고는 성씨별로 해당되는 번호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서 분류자나 이용자 공히 성씨별 자모순 배열보다 오히려 접근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염려가 있다.

UDC 일본어 중간판 제3판<sup>28)</sup>에서는 929.5에 계보학을 별도로 두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 |                |                                |
|----------------|--------------------------------|
| .51 이론적 계보학    | .523 혈족관계의 證據. 혈족의 系圖          |
| .52 개개의 가족. 가계 | .53 출생, 洗禮, 결혼, 사망 등의 기록. 호적부. |
| .521 子孫系圖. 系統樹 | 各市町村의 주민 명부                    |
| .522 先祖系圖      | .55 비문. 墓詩. 墓名                 |

929.52 개개의 가족. 가계는 가족명(A/Z)별, 지역별(3/9) 또는 시대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Fugger家の 家系는 929.52Fugger, 유명한 프랑스인의 가계는 929.522(44), 18세기의 系圖는 929.522"17"이 된다.

LCC에서는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아래의 'CS: Genealogy'에 계보학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고 있다.<sup>29)</sup>

CS

1-3090 Genealogy

1-24 Preliminary section

25-39 Genealogical lists, etc., covering more than one country or continent

38-39 Family history covering more than one country

42-2209 By region or country

2300-3090 Personal and family names

27) C대학도서관의 정리 담당사서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것임.

28) 情報科學技術協會, 國際十進分類法, 日本語中間版第3版, 分類表, 東京: 同協會, 1994, pp.576-577.

29)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1996 edition.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1996. pp.106-11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보학을 대부분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각 지역을 문헌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본표에 나열하거나, 20구분의 보조표(Table C22: Table for genealogy (20 Nos.))<sup>30)</sup>와 10구분의 보조표(Table C23: Table for genealogy (10 Nos.))<sup>31)</sup>를 사용하여 세분하도록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지역별 계보학을 미국(42-71), 영국(410-439) 등은 본표에 세분하였고, 프랑스(580-599), 이탈리아(750-769) 등은 20구분의 보조표(Table C22)에 따라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1330-1339)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10구분의 보조표(Table C23)에 따라 세분하도록 하고 있고, 쿠웨이트(1131), 수단(1697) 등과 같이 세분 없이 국가별로 나열만 한 것도 있다. 보조표는 각 국별 계보학 내에서 문헌량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전술한 20구분의 보조표와 10구분의 보조표가 있다. 보조표의 내용은 다른 분류표의 표준구분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나열한 다음, 계층별, 시대별, 유형별, 지방별로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가족사를 배정하여 두고 있다.

朝鮮十進分類表에서는 계보자료를 '250 傳記, 世界叢傳' 지역별 전기 아래에 분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하고 있다.<sup>32)</sup>

250	傳記, 世界叢傳	2528	系譜
2508	系譜	253	日本人傳記
251	韓國人傳記	2538	系譜
2518	系譜, 族譜(姓別排列)	255	西洋人叢傳
252	中國人傳記(東洋人叢傳)	2558	系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보에 관한 일반적인 저작은 2508에 분류하고, 한국인의 계보, 족보는 2518에 분류한 다음 '姓別記號表'<sup>33)</sup>에 따라 성별로 개별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인 계보는 2528에, 일본인 계보는 2538에, 서양인 계보는 2558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 및 선장본의 우리나라 족보의 경우 이 분류표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靑松沈氏司正公派家乘'의 경우 분류번호로 고서를 나타내는 별치기호 '古'와 함께 '古2518'을 주고 저자기호로 성별기호표에 따라 계보를 나타내는 기호인 '系'와 함께 '系43'을 준 후 수입순 도서기호를 추가하여 개별화하고 있다. 이 경우 2518이 우리나라 족보를 나타내는 기호이므로 족보기호인 '系'는 이중으로 부여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전산화한 후부터는 '系'를 생략한다고 한다. 족보만을 별도로 분류하고자 한다면 성별기호표는 분류기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계보기호를 나타내는 '系'를 준 후 성별기호표에 따라 기호를 매기면 된다. 위에 든 '靑松沈氏司正公派家乘'의 경우 '系43'만으로 분류번호가 완료되는 셈이다.

30) *Ibid.*, p.157.

31) *Ibid.*, p.158.

32) 朴奉石 編, 朝鮮十進分類表, 서울: 國立圖書館, 檀紀4280(1947), p.45.

33) *Ibid.*, p.[118].

한편 고서를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漢籍分類表(一般古書用)<sup>34)</sup>에 의하면 족보자료는 사부분류를 개수하여 'B 史部' 중의 'B10 系譜類'를 별도로 두어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2. 계보자료의 개별화 방법과 편목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에서는 어떤 특정한 姓氏의 족보나 가족의 역사도 그의 성씨나 가족명을 대상으로 기본기호를 매긴다. 이때 그 대상어가 本貫과 성씨의 순위로 복합된 것일 경우에는, 이를 “姓·本貫”의 순위로 도치한 형식을 기호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여 동일한 분류기호를 가지는 족보의 개별화에 성과 본관이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sup>35)</sup> 이때 다른 저자가 지은 것이 두 개 이상 모일 경우에는 그 저자명(가입어)의 첫 자를 부가하여 이 들간을 개별화한다.<sup>36)</sup> 예를 들어 ‘덕수이씨충친회 편. 덕수이씨세보’의 경우 편자가 다른 동일한 족보가 있을 경우 개별화를 위하여 ‘이24더’로 기호화하여 개별화 한다. 특별히 족보자료가 많은 도서관에서 족보, 대동보, 파보(세보), 계보, 가승보, 만성보 등을 개별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성과 본관으로 작성된 저자기호에 통일표제의 표시로써 ‘족보’, ‘대동보’, ‘파보(세보)’, ‘계보’ 등의 초성을 표시하고 다음에 파명의 문자와 편자 이름의 초성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sup>37)</sup> 예를 들면 ‘金海金氏文敬公派譜’의 경우 ‘김18포ㅁ’가 되는데 여기서 ‘포’는 파보를 나타내는 문자이고 ‘ㅁ’은 文敬公派를 나타내는 문자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에서는 한국의 족보, 대동보, 파보, 계보 등은 동일한 분류기호아래 많은 자료가 모이므로 姓과 本貫을 대상으로 저자기호를 매겨 구분한다. 다시 개별화하고자 할 때는 본관, 성씨, 派名을 뺀 나머지 명사 “...족보”, “...대동보”, “...파보”, “...계보” 등의 첫 자음 “ㅅ, ㄷ, ㅍ, ㄱ”을 부가한다. 또한 “파”가 있을 때는 파명의 첫 자 완전형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sup>38)</sup> 즉 동일한 분류기호를 가지는 족보자료를 성, 본관, 유형별로 구분한 후 파명이 있을 경우는 파별로 구분하도록 저자기호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金海金氏扶餘公派系譜’의 경우 저자기호를 ‘김김해’을 대상으로 매긴후 ‘...계보’를 나타내는 ‘ㄱ’을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파명의 첫 자를 병기하여 ‘김319ㄱ부’로 저자기호를 구성하여 개별화한다.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에서는 족보자료를 분류는 KDC에 따라 999.11에 분류한 후 각 성씨별 족보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에서와 같이 성·본관순으로 기호화하는데 먼저

3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漢籍分類表(一般古書用),

[cited 2002.3.15] <<http://lib.aks.ac.kr/info/libinfo.htm>>

35)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p.27.

36) *Ibid.*, p.33.

37) 김남석, 도서기호, 제3개정증보판,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pp.205-206.

38)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 수정·보완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6, ‘표의 사용법.’

성을 채기한 후 별도의 '한국성씨(本貫別)기호표'<sup>39)</sup>에 따라 각 성씨의 본관별로 3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편성된 기호를 사용하여 개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慶州李氏尙書公派世譜'는 도서기호가 '이126상'이 된다. 여기서 '이'는 이씨를 나타내고, '126'은 한국성씨(本貫別)기호표에서의 '경주'이씨에 대한 도서기호이며, '상'은尙書公派에 대한 구분 기호이다. 따라서 이 도서관의 경우도 결국은 동일한 분류기호 내에서 성·본관·파의 순으로 기호화하여 개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대학교도서관의 경우 동양서의 저자기호표로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제2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특이하게도 족보, 家傳 자료는 본관을 먼저 기호화한 후 성씨를 부가하며, 파가 있을 경우는 그 초성을 부가하도록 하고 있다.<sup>40)</sup> 예를 들면 '파평윤씨문수공파세보'의 저자기호는 '파844윤ㅁ'이 된다. 이렇게 개별화할 경우 족보자료가 일차적으로 성씨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본관별로 구분한 후 성씨별로 세분되게 되어 성씨보다는 본관을 중심으로 배열되게 된다. 즉 경주김씨, 경주이씨, 경주최씨, 다음에 안동김씨가 배열되는 셈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과연 성씨 이전에 본관별로 먼저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이용자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의 편목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항은 계보자료와 일반자료간에 차이가 없다. 일반자료와는 달리 계보자료만이 지니고 있는 편목상의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CR2에 의하면 족보, 계보, 세보 등은 서명을 표목으로 하고 편자는 부출하며, 만일 서명만으로 그 분파를 알 수 없는 것은 필요에 따라 서명 다음에 그 분파명을 補記하도록 하고 있다.<sup>41)</sup> 예: 璿源續譜[錦城大君派]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고족보의 경우 통일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하여 MARC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 예를 들면 '遂安李氏典書公派譜 / 李淳膺 編'의 경우 '130 기본표목-통일서명'으로 '족보. 수안이씨. 전서공파.'로 줌으로써 족보를 통일서명으로 하고 본관과 성씨 그리고 파명을 권차서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653 비통제주제명'으로서 색인어를 '족보', '수안이씨', '전서공파', '수안이씨전서공파보'를 주고 있어 족보, 본관별 성씨, 파명 등으로 검색이 되도록 하고 있다.<sup>42)</sup>

KORMARC에서는 단행본용<sup>43)</sup>, 연속간행물용<sup>44)</sup>, 고서용<sup>45)</sup>에서 '008 부호화 정보필드'의

39) 이 기호표는 정독도서관에서 족보자료의 정리를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필사되어 있으며 내부의 제목은 '韓國姓氏別本貫別圖書記號表'로 되어 있다. 성씨는 '蘇州 賈씨'부터 '唐寅 后씨'까지 275姓 1,220여 本貫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라비아 숫자 111부터 921까지 성씨 및 본관별로 안배되어 있다.

40) 경북대학교도서관 수서정리과 분류목록팀, 분류·목록업무편람 - 한글 단행본 -, [대구 : 경북대학교도서관], 2001, p.10.

41)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6, p.26.

42) <[http://www.nl.go.kr/search/new\\_search/search/MarcView.php?rec\\_key=1147467&mat\\_class=1](http://www.nl.go.kr/search/new_search/search/MarcView.php?rec_key=1147467&mat_class=1)> [cited 2002.3.17]

43)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단행본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3, p.29.

44)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연속간행물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5, p.28.

자수위치 24-25의 '내용형식'에서 족보(고서용에서는 族譜, 系譜, 世譜)를 'j'로 부여함으로써 족보자료의 검색과 통계관리에 편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MARC21에서는 '008 필드 - 단행본용'<sup>46)</sup>의 삽도의 유형(자수위치 18-21)에 'j - Genealogical tables'을 주어 족보관련 자료의 검색 및 통계관리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 V. 계보자료 관리상의 개선 방안

ALA 계보컬렉션의 기준과 국내외의 계보자료 관리 사례 분석, 그리고 계보자료의 조직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도서관의 계보자료 관리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보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지통정할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전체 도서관의 족보 현황만이라도 파악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웹상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족보발행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족보자료도 적극적으로 납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새로이 발행되는 모든 족보가 '납본월보'를 통해 안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요구를 그 지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담수집이 필요하다. 특별시·광역시·道별로 대표도서관을 두어 계보자료 전문 컬렉션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성씨별 집성촌과 문중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특성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상호 정보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주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각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족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인터넷상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른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대표도서관의 계보자료 전문 컬렉션에서는 족보뿐만 아니라 계보연구의 방법에 관한 편람이나, 가족사; 생애에 관한 기록물; 인구조사표; 유서; 땅문서; 지도; 묘지와 종교적 기록물; 투표자 리스트; 군사기록; 신문; 지방사 자료; 색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서양에서 계보컬렉션을 역사자료 또는 가족사자료 등의 특수컬렉션과 함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향토자료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45)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고서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0, p.31.

46) MARC 21 Concise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2001 Concise Edition. Library of Congress,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s Office.

[cited 2002.5.12] <<http://lcweb.loc.gov/marc/bibliographic/ecbd008s.html#mrcb008b>>

넷째, 계보컬렉션에는 족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담 참고사서를 배치하여 계보자료의 검색법, 족보를 보는 방법, 참고 질의 응답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족보 전담 사서는 계보학, 기록관리학, 도서관관련 학·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계보컬렉션에서의 자료수집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전술한 납본제도에 의한 수집 및 발행정보 안내에 더하여 문중이나 고서점에 있는 자료는 물론 “외국에 있는 족보를 영인 또는 마이크로 필름화 해서라도 수집하도록 노력해야<sup>47)</sup>” 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 도서관의 계보컬렉션에서는 전술한 모든 계보자료의 유형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문중이나 고서점, 족보전문 출판사 등을 통한 구입 또는 수증으로 적극적인 자료의 수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특수자료의 관리 차원에서 과학적인 조직 및 보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계보자료의 조직에 있어서는 먼저 KDC4의 ‘999 系譜, 族譜’의 개정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의 족보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 족보만을 소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999.2-.7까지의 번호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번호이고, 또한 족보의 개별화가 성씨별 또는 가계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999.8 씨족, 귀족, 왕족’ 아래의 세목을 ‘999 系譜, 族譜’ 아래로 상향시켜 다음과 같이 번호를 간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의 계보가 있다면 999.2 아래에 지역구분하여 개별화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999 系譜, 族譜

1. 姓氏, 氏族

여러 성씨를 포함한 종합적인 성씨의 본관 및 시조의 유래나 주요 인물, 세계표 등 성씨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저작은 여기에 분류한다.

2. 族譜, 家系

한국의 족보는 여기에 성의 자모순 그리고 동성은 본관 또는 분파명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도서관에 따라 한국을 제외한 각국의 계보는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할 수 있다.

3. 墓誌, 碑銘

忌辰錄, 誌狀錄을 포함한다.

도서관에 따라 999.3-.9는 각각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할 수 있다.

5. 其他 系譜的인 諸資料

6. 貴族, 華族

文武官을 포함한다.

47) 趙婷化, “族譜資料 現況 및 運營方向 - 國立中央圖書館을 中心으로 - ,” 蒼史李春熙教授定年紀念論叢, 1993. p.777.

- .7 王家, 王族
- .8 帝王, 王妃
- .9 紋章, 家紋
- .99 國旗, 徽章

족보의 개별화는 기본적으로 당해 도서관의 도서기호 시스템을 사용하되 성씨, 본관, 족보유형, 파명, 편자 등의 순서로 배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계보자료의 편목에 있어서는 '족보' 또는 '계보', 본관별 성씨, 파명, 서명, 편자명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VI. 결 언

이상에서 계보컬렉션의 기준과 계보자료의 유형을 살펴 본 후 국내외의 계보자료의 관리 사례를 조사하고, 계보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수집과 분류 및 편목 등의 자료조직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장서관리와 정보검색이 될 수 있도록 계보자료의 수집과 자료조직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앞서 살펴본 국외의 계보컬렉션은 ALA가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계보학 장서 및 서비스 지침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서비스적 측면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보조하고 지도하며, 인쇄 및 디지털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여 상호대차를 통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용자를 다른 전문기관의 사서에게 소개하는 정보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장서개발적 측면에서는 ALA가 계보학 도서관 및 자료실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한 자료들, 즉 족보뿐만 아니라 계보연구의 방법에 관한 편람이나; 가족사; 생명에 관한 기록물; 인구조사표; 유서; 땅 문서; 지도; 묘지와 종교적 기록물; 투표자 리스트; 군사기록; 신문; 지방사 자료; 색인 등을 마이크로 형태 및 인쇄물, 디지털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직원의 측면에서도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질문에 전문적인 참고봉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나라 도서관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 앞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근간으로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자신의 가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성이나, 연구심이 어느 나라에 비해 결코 뒤떨어짐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도 위에서 제시한 국외의 다양한 계보컬렉션의 예시를 참고하여 뿌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구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북대학교도서관 번역·수정. 듀이십진분류법. 제21판 경북대도서관 수정본. 대구: 경북대학교 도서관, 1998.
- 경북대학교도서관 수서정리과 분류목록팀. 분류·목록업무편람 - 한글 단행본 -. [대구 : 경북대학교도서관], 2001.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한국인의 성씨 및 본관 조사보고: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서울: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88.
-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 수정·보완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6.
- 김남석. 도서기호. 제3개정증보판.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www.encyber.com/>>
- 리재철. 한글순 도서기호법.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 朴奉石 編. 朝鮮十進分類表. 서울: 國立圖書館, 檀紀4280(1947).
- 백수영. “두류도서관 족보자료실 운영 및 활성화 방안.” 圖協, 第十七輯(1999), pp.147-164.
- 봉성기. “譜牒資料 現況 및 利用에 관한 考察 -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에 대하여.” 도서관, Vol.56, No.4(2001년 겨울호), pp.77-108.
- 서울特別市立公共圖書館 族譜綜合目錄 1, 서울: 서울特別市立正讀圖書館, 1993.
- 張仁鎭. “族譜資料의 文獻學的 考察.” 漢文學研究, 第9輯(1994), pp.237-264.
- 情報科學技術協會. 國際十進分類法. 日本語中間版第3版. 東京: 同協會, 1994.
- 趙婷化. “族譜資料 現況 및 運營方向 - 國立中央圖書館을 中心으로 - .” 蒼史李春熙教授定年紀念論叢, 1993. pp.755-781.
- 崔在錫. “족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p.664-670.
-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6.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고서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0.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단행본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3.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연속간행물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5.
- 韓國圖書館協會分類分科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6.
- 韓國圖書館協會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 編. 改正第4版韓國十進分類法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7.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漢籍分類表(一般古書用), <<http://lib.aks.ac.kr/info/libinfo.htm>>
-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Ed. 21. Albany, N.Y.: Forest Press, 1996.
- Doane, Gilbert H. "Genealogical Libraries and Collection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Vol. 9(1973), pp. 200-211.
- "Guidelines for Developing Beginning Genealogical Collections and Services." Prepared by the Genealogy Committee of the History Section of the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1991, revised 1999. Approved by the RUSA Board of Directors June 1999.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V.39, N.1(Fall 1999). pp. 23-24.
- Kemp, Thomas Jay. "The Roots of Genealogy Collections." *Library journal*, Vol.124, Iss.6(April 1, 1999), pp.57-60.
-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1996 edition.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1996.
- Litzer, Donald S. "Library and Genealogical Society Cooperation in Developing Local Genealogical Services and Collection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37, No.1(1997), pp.37-52.
- MARC 21 Concise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2001 Concise Edition. Library of Congress,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s Office. <<http://lcweb.loc.gov/marc/bibliographic/ecbdhome.html>>
- Reference Sources for Canadian Genealogy*. Compiled by Mary Bond. National Library of Canada, Dec. 1995. <<http://www.nlc-bnc.ca/obj/s5/f2/egenea.pdf>>
- <<http://www.aucklandcitylibraries.com/process.asp?pageurl=/explore/familyhist/index.html>>
- <<http://www.jeongdok.or.kr/>>
- <<http://www.lapl.org/central/guides/genealogy.html>>
- <<http://www.lapl.org/central/history.html>>
- <<http://www.nl.go.kr/>>
- <<http://www.nlc-bnc.ca/6/5/index-e.html>>
- <<http://www.statelibrary.vic.gov.au/slv/genealogy/genealog.htm>>
- <<http://www.turyu-lib.taegu.kr/>>